

지역 매 아리

정읍교육지원청, 인권교육 실시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열)은 21일 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지원청과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80여명)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전문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기본 개념과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와 인권 행정 실천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정읍교육지원청의 2019년 인권교육은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시작으로 장애인, 영유아 인권, 사별별 인권문화 공감하기 과정 등 총 6차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청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종,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의 의미와 그것이 지닌 중요성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권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우리 조직에서부터 변화하는 노력을 보이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사과·배 과원 관리 주력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이른 추석을 앞두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조생종 사과와 배를 생산하기 위한 막바지 과원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정읍지역 사과 재배면적은 106ha, 배 재배면적은 40ha다.

기술센터는 사과의 경우 햇빛을 고루 받아 착색이 잘 될 수 있도록 웃자란 가지를 정리하고 과실 주변의 잎을 따주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수확 2주 전에는 과원 바닥에 반사 필름을 깔아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배의 경우 나무의 착과 부위에 따라 속기가 조금씩 달라 큰 과실부터 3~5일 간격으로 분산 수확해야 과실이 커지면서 당도와 품질이 향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술센터는 수확 막바지 돌발해충의 적기방제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 탄저병 발생이 우려되는 과수원은 수확 예정일을 역산해 PLS(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방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지원을 받아 고품질 과일 생산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사과와 배, 복숭아, 단감 재배 농가(124ha)에 5천만원을 지원했다.

또 사과과당 증진 생력 인공수분기 시범사업과 일소과방해자·착색증진 피복제 시범사업 2개 사업에 2천만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정읍시, 내달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정읍시가 내달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현재 3528명이 지급 받는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총 4244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어 중단된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다.

단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전에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제외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월생~2013년 8월생)이다. 단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이 되지 않는다.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전에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제외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살기 좋은 정읍 실현

자원봉사 산내 거점센터 개소

정읍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산내면 주민센터에서 '정읍시 자원봉사 산내 거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산내면 자원봉사자, 정읍시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현관 제막식을 가졌다. 이어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유진섭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개소하는 산내 거점센터를 통해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은성수 이사장은 "다양한 자원봉사의 욕구 조사를 통해 자원을 연계하고 전문자원봉사 상담가를 배치해 거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자원봉사센터는 산내 거점센터를 시작으로 23일에는 고부 거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읍면동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거점센터는 산내면 주민센터 내에 사무소를 두고 전문 봉사자(상담가)를 배치, 민·관이 소통·협력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지역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자원봉사 욕구 해소는 물론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개소하는 산내 거점센터를 통해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은성수 이사장은 "다양한 자원봉사의 욕구 조사를 통해 자원을 연계하고 전문자원봉사 상담가를 배치해 거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자원봉사센터는 산내 거점센터를 시작으로 23일에는 고부 거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읍면동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실행계획 보고회 가져

2019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실행계획 보고회가 최근 군청회의실에서 열렸다. 유기상 고창군수, 전문위원,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축제주관대행사의 실행계획 보고에 이어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수차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간구성에서부터 축제의 프로그램, 공연, 홍보, 안전관리계획까지 보고되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온천대축제 실행계획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올 3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실행계획 보고회가 최근 고창군청회의실에서 열렸다.

월에 2019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석정온천관광지에서 개최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렴부안혁신위원회, 청렴도 향상 회의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청렴부안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구성된 청렴부안혁신위원회는 청렴종합대책 수립,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등 부안군의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부안군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청렴도 향상에 대한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청렴부안혁신위원회에서 제시된 시책 및 자문을 하반기 청렴 분야 시책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 청렴 손거울 배포 및 지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일 고창군청광장에서 실시한 사랑의 헌혈행사에 고창군수를 비롯한 군청 직원 80여명 등 많은 군인이 동참했다.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

고창군,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응급혈액 확보를 위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추진해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 실현에 앞장섰다.

20일 군청광장에서 실시한 사랑의 헌혈행사는 급감하는 하절기의 혈액 수요에 대응하고,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고창군수를 비롯한 군청직원 80여명 등 많은 군인이 동참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몸소 헌혈에 동참하면서 "헌혈의 소중함을 공직자가 먼저 느끼고 적극 실천해 고귀한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대한적십자사 전북 혈액원과 매분기 '생명나눔 헌혈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요의 안정화와 선진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적인 헌혈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참가하면서 "헌혈의 소중함을 공직자가 먼저 느끼고 적극 실천해 고귀한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대한적십자사 전북 혈액원과 매분기 '생명나눔 헌혈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요의 안정화와 선진 헌혈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적인 헌혈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몸소 헌혈에 동참하면서 "헌혈의 소중함을 공직자가 먼저 느끼고 적극 실천해 고귀한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 나서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 신태인읍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사업에는 지역 사회(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KCFT 정읍공장,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신태인읍사무소, 가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 신태인읍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구창고 아울렛, 무궁화 복지월드 정읍권)가 함께 참여했다.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비롯한 주방 바닥공사와 전기공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오염이 심한 도배와 장판, 침대를 교체하고 후원 물품과 연계해 가전제품을 새로이 놓는 등 전반적인 지원도 이뤄졌다.

사업은 30여 년 전 오트바이 사고로 침대에만 누워서 지내는 지체 장애 남성과 지적장애 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담장과 외벽 사이에 배

수관이 없어 비만 내리면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을 받은 장애인 공모씨는 "3년 동안 비만 오면 물을 퍼낼 걱정에 근심이 많았다"며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전했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wine bottles and several gift sets.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The advertisemen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